



대한지질학회 소식지

NEWSLETTER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제 44 호 2004. 8

CONTENTS AUGUST 2004

- 1 정기이사회 소식
- 2 분과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 정비
- 2 학술활동 보고
- 4 남북지질학용어집 편찬 완료
- 6 2004 추계학술발표회 안내
- 7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개정령 입법 예고
- 7 지질학회지
- 7 원로 특별기고
- 8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화호 자연탐사
- 8 종신회원 제도 운영
- 8 신입회원 및 학회비 납입자 명단
- 9 학회비 납부 안내
- 9 경북대학교 교수 초빙
- 10 기관 소식
- 10 회원 동정
- 11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발행인 | 김성균

편집인 | 정창식

발행처 | (사)대한지질학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3호(우:135-703)

Tel. (02)3453-1550 Fax. (02)3453-1824

E-mail. office@gskorea.or.kr

gskorea@hitel.net

홈페이지 | <http://www.gskorea.or.kr>

인쇄기획 | 동양기획 T.2272-6826 F.2273-2790

E-mail: dy98@unitel.co.kr

| 정기이사회 소식

■ 제418차 정기이사회

4월 23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 418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날 토의된 주요 안건들입니다.

- 학회 규정 정비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인수 이사)
- 종신회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회비는 100만원으로 결정함.
- 향후 IUGS 분담금 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올해 8월 피렌체에서 열리는 32차 IGC 학술대회 때 IUGS 회의 참가 대표 이병주 부회장, 부대표 정창식 이사로 결정하고 통보하기로 함.

■ 제419차 정기이사회

6월 24일 학회 사무국에서 제 419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학회 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토의되었습니다. 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및 규정 개정
 - 1) 분과위원회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 시안을 정하고 홈페이지, 소식지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2) 학술용역 관리 내규를 정함.
 - 3) 기존의 포상규정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각종 현안 (광석광물 관련 표준화사업, 먹는 샘물 관련 지질조사 강화, 지질조사법과 품셈, 문화재 보호와 지질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추계학술발표회 주요 마감일 안내

- | | |
|-----------------------|------------|
| ■ 구두 및 포스터 논문초록 접수마감일 | 9월 15일(수) |
| ■ 홍보 부스설치 및 초록집 광고 신청 | 10월 7일(목) |
| ■ 사전등록 마감 | 10월 9일(토) |
| ■ 학생회원 등록 | 10월 22일(금) |

***우수포스터는논문발표자 첫 번째 저자

분과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 정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와 같이 학회 419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분과위원회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 시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보완 한 후 올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학회 사무국으로 많은 의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술용역 관리 내규도 제정되어 시행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 (분과위원회 목적)

본회 회원은 학문 분야별로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설치 및 해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조 (세칙)

분과위원회의 세칙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임원 선출)

각 분과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한다.

제5조 (회비)

각 분과위원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재정 보조)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본회에서 보조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0월 대한지질학회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선거관리 규정

제1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본회의 임원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현직 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한다.

제3조 (회장선출)

전문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한 총회 투표에서 최고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시행하며, 재투표 결과도 동수인 경우는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이사 및 감사 선출)

전문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한 총회 투표에서 하위 당선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제5조 (이사 결원 보충)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충한다.

제6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0월 대한지질학회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학술활동 보고

■ 춘계학술답사 실시



2004 대한지질학회 제주도 춘계학술답사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7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춘계 학술답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제주도의 화산암과 화산활동이라는 주제로 제주도 형성사 (박기화), 제주도의 수성화산활동과 제4기 퇴적작용 (손영관), 제주도 송악산 단성화산의 화산지질과 과정 (황상구), 제주도 동부지역

의 지하 지질분포와 $^{40}\text{Ar}-^{39}\text{Ar}$ 연대 (고기원), 제4기 연대측정기술 현황 (정창식) 등의 세미나 발표가 있었고 박기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손영관 (경상대학교) 회원의 안내로 지질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주도청 관계자 여러분과 후원해 주신 LG건설, 희송지오택(주), 지오택건설탄트(주)에 감사드립니다.

■ 2004년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행사 참가

대한민국 과학축전 행사와 공동으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COEX 인도양관에서 개최된 2004년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행사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관련사진 11쪽 참조). 많은 회원들의 협조와 수고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한국석유공사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준비위원장

이병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준비위원

고희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용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형수 (한국수자원공사)

문상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세진 (한국석유공사)

신인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흥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인옥 (전남대학교) 이영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용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종익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임창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장천중 (한전전력연구원)

정창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진영근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최범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허민 (전남대학교)

• 실무위원

김유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정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현철 (서울대학교) 박동희 (한전전력연구원)

이재일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이호선 (부경대학교)

정연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정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호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진행요원

곽세건, 이대길, 정진우 (전남대학교)

안수연, 정재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참가후기

| 대전 어은중학교 1학년 정다정, 정창식 회원 가족 |

머칠 전, 서울 코엑스 몰에서 했던 과학 축전에 갔었다. 처음에는 과학 행사라는 말에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생각 외로 무척 재미있는 행사였다. 진공으로 볼링공 들어올리기, 공룡 화석, 과학 책에서나 보던 광섬유,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기계들..... 수많은 부스들이 제각각 한껏 매력을 뽐내고 있었다. 딱딱한 과학 이론과는 사뭇 다른 과학의 면모를 볼 수 있어 무척 인상 깊고 즐거웠다.

대한지질학회 부스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진열대 가장 밑에 칸 최 우측에 있는 커다란 백운모였다. 어릴 때, 뒷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놀이터에서 주워 하나하나 꺾질처럼 벗기며 놀던 하얀 비닐 같은 것이 백운모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보아 왔던 백운모들은 하나같이 내 손가락 한마디의 크기를 넘기지 못하였다. 현대 도대체 이 건 뭘까? 거대하기 이를 데 없는 압도적인 크기의, 이런 백운모는 처음이었다. 돌맹



2004년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행사장

이만한 것도 못 보았는데..... 아는 광물인 만큼 더 신기하게 느껴졌다.

바로 옆의 위에 칸에는 뭔가 건어물처럼 생긴 화석이 있었다. 아니, 건어물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건어물이다. 물고기 화석이었으니까. 화석 옆에는 미국 와이오밍에서 발견된 신생대 물고기 화석이라고 적혀있는 작은 표지판이 놓여있었다. 상당히 특이한 지명이라서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았다. 웬지 북어포를 떠올리게 하는 화석이었다. 공룡알 화석은 계란의 한 10배 쯤 되어 보였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달걀모양을 좋아하던 터라, 공룡 알이 꽤 귀엽게 느껴지는 바였다. 타조 알로 요리를 하면 한 30인 분은 나온단데, 공룡 알은 얼마나 나올까? 새삼 궁금해 졌다. 화석들이 잔뜩 놓여진 테이블에는 공룡 알 말고도 여러 화석들이 많이 놓여있었다. 사람들이 만지는 것을 보니 사본인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사본이었다. 진짜가 아니라서 꽤 다행스러웠다. 아까 공룡 알을 여러 번 쓰다듬었기 때문이다. 알 옆에는 알 못지않게 시선이 끌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익룡 화석이었다. 다들 익룡하면 주라기 공원에나 등장하는 엄청 큰 익룡 만을 상상한다. 나도 그랬었다. 그런데 이 익룡은 기껏해야 높이가 20cm 정도밖에 안되어 보인다. 익룡의 크기도 다양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화석의 우측에는 무슨 기계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교과서에서 지진과 공부하면서 지겹도록 들었던 지진계였다. 스탠드에 고무찰흙 붙인 펜이나 매달아서 만들던 후진 지진계만 보아 왔던 나는 지금까지 세상 지진계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지진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겠다. 화석 테이블에도 기계가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그건 뭔가 현미경도 아닌 것이 꽤 특이해 보였다. 입체로 보인단나? 아! 그러고 보니 ‘환상 특급 체험’이라는 책에서 특수 안경을 쓰고 그림을 보면 입체로 보이는 그림이 있었다. 비슷한 걸까? 호기심에 다가가 보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5분 정도는 옆에서 서성거리기만 했다. 가까스로 차례 잡아서 보니, 정말 입체였다. 그림 두장이 하나로 합성되어 보였는데 좋기로 만들어 놓은 미니 어치 같았다. 내가 거인이 되어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외에도 많은 부스들을 보았다. 초등학교 때 견학 갔었던 정화조와 같은 모형 정화조, 가공 전의 실리콘, 입체 영화, 진로 테스트, 교과서에 가끔 실리던 광섬유 사진에서 보던 광섬유도 실제로 보았다. 선물로 받은 천재 사진 CD나 광섬유 두 가닥은 손의 쇼핑백에 모셔져 있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행사란 것이 꼭 가수 오고 음악 틀고 해야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 과학이라는 과목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면 더욱 즐거운 과학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번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자주 들러야겠다.

남북지질학용어집 편찬 완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협조 요청된 남북 지질학 용어집 편찬사업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경과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 2003. 12 대한지질학회 416차 이사회에서 남북지질학 용어집 편찬사업 승인, 재정지원 의결

- 2003. 12 남북지질학용어집 편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장호환 (서울대학교)

• 위 원

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호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정웅 (송문고등학교) 안중호 (충북대학교)

유재영 (강원대학교) 이달희 (서울대학교)

이병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정구 (과학기술부)

이정모 (경북대학교)

정창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2003. 12 1차 편집회의 개최 (대한지질학회 사무국)

- 2004. 1 대한지질학회 417차 이사회 재정지원
중액 의결

- 2004. 2 2차 편집회의 개최 (대한지질학회 사무국)

- 2004. 3 3차 편집회의 개최 (대한지질학회 사무국)

- 2004. 4 한국지질과학협의회 소속 학회에 1차 정리
파일 송부

- 2004. 5 한국지질과학협회 소속 학회 의견 취합
- 2004. 6 최종 16,560 지질용어 정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송부

南北科學技術用語集 ‘地質學’ 편의 발간을 앞두고

학회 회원님들에게 南北科學技術用語集의 ‘地質學’ 편을 발간하게 된 경위를 알려드리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학술적 오류는 학회가 아닌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밝히고자 이 글을 씁니다.

작년 초에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이하 科總)의 金始中 회장님과 朴澤奎 부회장님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南北 分斷 50여년이 지나면서 사용언어 및 용어가 서로 相異해지고, 의미와 뜻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에 남북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科學技術用語의 비교조사가 시급하여 이에 관한 연구사업을 科學技術部로부터 위탁받아 科總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2003년 9월경 科總의 朴澤奎 부회장으로부터 다시 남북과학기술용어집을 발간하게 된 경과 사항과 함께, 이미 2000년도(物理化學), 2001년도(農學) 및 2003년도(數學, 生物學, 情報工學, 金屬工學, 建築工學) 8월에 모두 8개 분야의 용어집을 이미 刊行한 바 있고, 마지막 년도인 2004년 6월말 경에 5개 분야(化學工學, 機械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地質學)의 용어집을 포함하여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기술 등 총 13개 분야의 용어집을 완료하고자 하며, 마지막 년도에는 기초과학으로 地質學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地質學分野의 용어집을 책임지고 執筆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부탁받은 제 자신의 능력도 문제이려니와, 지질학계의 公認된 地質學 用語集도 없는 상태에서 南北科學技術用語集의 ‘地質學’ 편을 8개월 내에 제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어안이 빙빙하여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질학계의 公認된 용어집이 아직 없다는 現實을 체면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 앓으며 머뭇거리는 저에게, 정 곤란하면 地質學分野를 除外할 수도 있다는 은근한 압력에 난감하였습니다. 그러나 科總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중의 하나인 우리 地質學會의 名譽와 後學에 대한 學問的 義務를 생각할 때 막무가내로 못하겠다고 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大韓地質學會의 金性均 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결과, 전체 지질학계의 명예에 관한 일로서 기꺼이 협조 지원하겠다는 意思를 밝혀 주었고, 어려운 大韓地質學會의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公式事業으로 인정하여 700여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03년 12월에 南北地質學用語集委員會의 첫 모임을 갖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사업에 진력하게 되었습니다. 각 전공 분야별로 高尚模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具昊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朴柱雄 박사(송문고등학교), 安重皓 교수(충북대학교), 俞在瑛 교수(강원대학교), 李達熙 박사(서울대 BK지구환경사업단), 李炳柱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李貞九 박사(과학기술부), 李政模 교수(경북대학교) 및 鄭昌植 박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協助를 얻어 용어집 작성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집 작성에 관한 몇 가지 原則과 基準을 정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列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남북과학기술용어는 南北韓의 初·中·高校 및 大學課程의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비롯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관련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모두 수록한다.
2. 과학기술용어는 韓國語, 朝鮮語, 英語, 순으로 배열하며 영어와 조선어 색인을 마련하여 남북한 과학기술용어를 쉽게 비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北側에 제공하는 용어집은 조선어, 영어, 한국어 순으로 한다.
3.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발간된 각 분야별 용어를 수집·정리하여 서로 對比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용어집을 참고로 하였다.

- 1) 지질학사전, 양승영 편저, 교학연구사, 서울, 1998
- 2) 과학기술용어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편, 아카데미서적, 서울, 1988
- 3) 과학자, 기술자의 벗 CD-ROM,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제작, 평양, 1999
- 4) 地學辭典(改訂增補), 地學團體聯合會, 平凡社, 1992

4. 標題語(올림말)는 한국어로 하여 가 나 다 順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에 해당하는 조선어와 영어 對譯을 주고, 조선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나 영어의 對譯을 찾을 수 있도록 조선어와 영어의 찾아보기를 책의 뒷부분에 싣는다.
5. 한 가지 용어에 대해 여러 가지 對應語가 있을 경우 모두 제시하고, 한국어에서 생략해도 좋은 말은 괄호 ‘()’속에 넣는다.
6. 하나의 영어 용어에 여러 개의 한국어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한국어에 조선어와 영어를 併記하고 나머지 한국어에는 조선어나 영어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 경우 한국어에는 화살표로 상관 한국어를 표시한다.
7. 세부전공분야는 필요한 경우 ‘< >’속에 넣고, 접말(합성어)의 경우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해당 한국어가 없는 외국어는 로마자 표기법 원칙에 따라 발음대로 表記하되 대부분 학자들의 일반적인 발음과 다를 경우 그를 존중한 경우도 있었다.

제한된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 그리고 특히 총무간사를 맡은 鄭昌植 박사의 獻身的 역할에 의해 스피디하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4년 5월에 總 16,560 餘個의 地質學用語에 대한 南韓과 北韓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對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韓國地質科學協議會 소속 學會들에게 1차로 정리한 파일을 송부하여 각 학회의 의견을 聚合할 수 있었으며, 科總으로부터 마감일로 통보 받은 2004년 6월 30일에 최종 원고를 제출할 수 있었기에 소명감만으로 봉사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添言하고자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요 학회에서는 학회 내에 용어위원회를 常設하여 요즘처럼 과학기술의 변화 및 분야의 淸正化에 따른 새로운 전문 학술용어의 출현과 이에 대한 검토 및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때 우리 大韓地質學會에서도 用語委員會를 상설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학술용어는 학술지등을 통해 소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諮問을 하여 주신 鄭昌熙 명예교수님에게 심심한 謝意를 올리며, 南韓과 北韓의 科學技術界에 이바지할 기회를 우리 地質學界에 주신 科總의 金始中 회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뒷 풀이를 한 후 남북지질학용어집 위원회를 해산하였으면 저의 마음이 한결 편안하겠는데,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달라고 염치없이 굴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못내 아쉽게 생각 됩니다.

2004년 7월 장 호 완

2004 추계학술발표회 안내

- 일시: 2004년 10월 29일(금)~ 30일(토)
- 장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논문초록 접수 마감: 9월 15일(수)
- 준비위원장: 이병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초록 제출안내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도 한글 및 영문 논문초록이 모두 가능하며, 전자우편(E-mail)을 사용하여 초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논문초록은 일반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 초록과 함께 초록 내용이 담긴 CD를 학회사무국으로 9월 15일(수)까지 도착하도록 보내 주십시오. 전자우편으로도 9월 15일(수)까지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사용해 제출하시는 경우, 초록을 아래 한글(hwp)로 작성해 주시고, 아래 주소에 첨부파일(attachment file)로 접수시키면 됩니다. 발표 논문초록의 파일 이름은 발표자의 “한글성명.hwp”

로 해 주십시오. 같은 저자가 두 편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표자 성명 뒤에 일련번호(a, b, c, ...)를 붙여 주십시오. 초록이 전자우편으로 접수되면 근무시간 기준으로 24시간 내로 확인답장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답장이 없으면 아래로 전화를 주십시오.

초록접수 후 채택여부 및 발표순서 등을 학회 홈페이지(<http://www.gskorea.or.kr>)에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초록접수 E-mail 주소 : office@gskorea.or.kr / Tel. 02-3453-1550

※ 논문초록 작성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개정령 입법 예고

(7월 12일, 노동부 공고 제2004-94호)

지난 노동부 공청회 이후 학회와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협의회 등 여러 기관, '젊은 지질 기술자 포럼'의 여러분과 많은 분들께서 힘써 주신 덕분에 지질 관련 기술 자격이 국가의 검정 금지 종목으로 유지되는 등 목적인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학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지질학회지

지질학회와 관련된 분야에서, 지질학회지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지질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수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투고된 논문의 많은 편수가 논문심사에서 "대폭 수정 후 채택"의 판정을 받아 게재할 논문수가 적어 지질학회지의 안정된 발간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고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질학회지는 순수 지질학 연구와 함께 지질학의 원리를 활용한 응용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투고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지질학회지 편집위원회

원로 특별기고

지질학의 세계화 등에 관하여



장 기 홍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몇몇 선진국들에서 지질학과의 다수가 '지구 및 행성(行星)과학과'로 변신했다. 일본도 그런 변신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 땅에도 명실상부한 '지구 및 행성과학과'가 한둘은 생겨야 할 것 같다. 그런 센터가 있어야 NASA가 자료와 정보를 보내올 수 있을 것이다.

태양계의 연구를 떠나서는 지구를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 세계화(世界化)의 추세를 넘어 '우주(宇宙)화'라고나 할지.

그러나 어떤 변화와 발전에도 지질학의 고유성(固有性)에 대한 자각이 중심에 있어야 하리라. 어떤 별관(別館)을 차리더라도 지질학이란 핵심이 미아(迷兒)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질학은 뿌리와 같다. '지질학은 영원하다'고 하면 낭만적인 표현 같지만 야외 지질조사, 암석, 화석 등 지질학적인 것들이 뚜렷한 이상 지질학의 영역은 항상 있다. 장차 사람이 화성에 발을 내디딜 때 우선 지질조사를 할 것이 아닌가? 이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요즘 선진국에 가서 지질학의 중견들을 만나면 흔히 듣게 되는 한탄은 야외조사의 경험적 적어 기초가 부족한 후진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라는 지역의 지질학에 집중해온 필자는 늘 그 반대편의 것, '지질학의 세계화'에 더 가치를 두어왔다. 내가 하는 연구가 그대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연구가 장려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앞으로 우리 학계는 환경과학 등에서 그런 세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도 맞다. 나는 우

리 국토의 지질이야말로 전지구적(global) 구조과정의 소산(所産)임을 실감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고 느껴본다.

이 땅에 몸을 둔 사람들에게는 응분의 사명이 있게 마련이다.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바닥에서 일생을 기어다니며 하는 연구가 더 효능이 있을 수도 있다. ‘신토불이’라고나 할지. 조물주는 거리(距離)라는 명어를 겸지했다. 공간적 존재인 사람에게서는 자기 땅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다. 사명감 있는 자들은 서로 동지라 느낀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모(母)학회의 쇠약(衰弱)상이 어떻게 된 일인가? 대한지질학회는 몇 개 자(子)학회와 공동으로 모여야 (총회 등) 겨우 성원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어머니 수탈을 다른 어느 학회에서 볼 수 있단가? 지질학회지는 문자 그대로 잡지가 되어버렸다. 지질학회지다운 논문들은 암석학회지를 펴면 거기 집결되어 있음을 본다. 이런 현상은 타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세상이 돈 밖에 모르는 판국이 되어 지질학이 무시되는 경향마저 있으나 이는 세상이 잠시 잘못되어 그런 것이지 지질학의 본질 탓이 아니다. 지질학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지질학을 전파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지질학을 전파하자면 우리 자신이 지질학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아직 공부가 덜 되어 피상(皮相)을 헤매는 감이 있다. 한 예를 들면, ‘옥천대의 문제는 영구미제(永久未濟)로 남을 것이다’라는 패배주의마저 횡행한다. 창리층에서 완족류 등 파편들과 다량 다종의 오르도비스기 이후의 코노돈트가 발견된 것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당시는 옥천누층군이 원생대층이라 생각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때 저자는 이 화석들이 원생대 지층 속으로 새어 들어갔다고(leakage) 결론지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창리층은 오르도비스계 열터이다. 구룡산층의 함우라늄광은 그와 흡사한 분석치의 것이 평양부근의 캄브리아계 기저에 분포함이 알려졌다. (평양부근에서 그 연구의 주역이었던 한 러시아 학자는 북한 원자력 관계자들로부터 지금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직접 들었다.)

그렇다면 옥천대의 함우라늄층의 층위도 캄브리아계 기저 혹은 그쯤이 아니겠는가! 옥천대의 문제도 해결이 눈앞에 있다.

실로 많은 일거리가 일군을 기다리고 있다. 지질학을 바로 붙들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화호 자연탐사

- 일시: 2004년 8월 17일(화)-19일(목)(2박 3일)
- 장소: 경기도 시화호 공룡알화석지와 그 주변 일대
- 주관: 지구과학교육연구회 부설 자연탐사학교
- 담당: 박정웅 회원(송문고등학교)

■ 중신회원 제도 운영

학회에서는 매년 학회비를 납부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중신회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회비를 1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신회비 송금계좌] 은행명 : 한미은행
계좌번호 : 102 - 51739 - 241
예금주 : 대한지질학회

■ 신입회원 및 학회비 납입자 명단

■ 신입회원 명단 (2004. 4. 3 - 2004. 7. 30)

[일반회원]

강태섭 김유숙 박동희 배진한 심택모 안윤성 이근병
이윤근 장용관 차경희 (10명)

[학생회원]

권창우 김만중 김민준 김성민 김은정 류종식 박정서
박해민 손용석 이나경 정찬덕 한상현 (12명)

■ 학회비 납입자 명단 (2004. 3. 19 - 2004. 8. 5)

[중신회원]

김영태(부여고등학교) 회원께서 종신회비로 100만원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일반회원]

강백규	강태섭	고기원	고영구	고영실	권영인	김건영
김경식	김구영	김기범	김기업	김기준	김기현	김길영
김대우	김문섭	김성렬	김승범	김연중	김용준	김유숙
김유홍	김의성	김정률	김중화	김준모	김창훈	김태수
김학준	김현철	다나카유키야	문우일	문종규	박관동	
박근영	박남서	박동희	박명호	박병권	박복국	박영록
박원배	박찬호	박창고	박창업	배광옥	백 용	상기남
서용석	신일철	신현조	신현출	안윤성	양경희	양우현
오창환	우남철	유병화	윤성호	윤정수	윤진수	윤진오
이광률	이광식	이기화	이동우	이동진	이민부	이봉주
이상현	이승엽	이영엽	이의형	이정모	이종덕	이종익
이진수	이찬희	이창섭	이천복	이철우	이치문	이현구
이희준	임만빈	임무택	임순복	장기홍	장보안	장세원
장수범	장찬동	장태우	장 호	정공수	정남수	정창순
정희옥	조문섭	조성권	차문성	채병근	최문영	최범영
최병륜	최영섭	최용석	최정찬	한만갑	한 욱	허 민
홍성완	황구근	황 정	Reedman			(115명)

[학생회원]

강동환	강소라	권창우	김남훈	김 련	김만중	김민준
김선태	김성민	김태형	문향란	박정서	박해민	서경환
손용석	오성진	이광률	이기욱	임현수	정병주	정찬덕
최태진	한상현	함경식				(24명)

I 학회비 납부 안내

■ 지로 입금

불입 내역과 같이 청구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완납회원 및 종신회원은 지로용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बैं킹

5분 안에 모든 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회비납부입니다. 납부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원명”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송금계좌] 은 행 명 : 한미은행
계좌번호 : 102 - 51739 - 241
예 금 주 : 대한지질학회

■ 신용카드 결제

학회비, 논문게재비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의 종류는 국민카드, 외환, LG, BC 카드이며, 별첨 “신용카드 결제표”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우편이나 FAX를 통하여 학회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학회 사무국의 주소와 FAX 번호는 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신용카드 결제표는 학회홈페이지

(<http://www.gskorea.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카드종류를 선택해 주십시오.
2. “카드번호, 유효기간”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3. “서명”하지 않은 결제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또한 결제내역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경북대학교 교수 초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 교육전공)에서 아래 분야의 교수를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 및 인원: 암석학 1명

2. 자 격: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한 분 (Post-Doc. 포함)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 지원서 접수기간:

2004. 9. 17(금) - 2004. 9. 22(수)

09:00 - 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 우편접수는 2004. 9. 22(수) 18:00까지

본교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함

4. 세부사항: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경북대학교 교수초빙 홈페이지 : <http://www.knu.ac.kr/employ>

※ 문의처 : 과학교육학부 (Tel. 053-950-5922, 5917)

교무처 교무과 (Tel. 053-950-5074~5 / FAX (053)950-5079)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기관 소식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개소식
2004년 7월 1일 한국해양연구원 대강당에서 극지연구소의 개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 제1회 한일심포지엄 개최
 - 일시: 2004년 10월 4일(월) - 7일(목)
10/05 (화) - 10/06 (수) 학술발표회
10/07 (목) 야외답사
 - 장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대덕연구단지)
 - 주제: Present earth surface processes and historical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ar East
 - 소주제 1: 현재 지표면에서 진행중인 침식-퇴적 환경(3편 모집)
 - 소주제 2: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지표환경 변화(3편 모집)
 - 주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부
일본 가나자와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일본학술진흥회 지정 Center of Excellence)
 - 초록마감: 2004년 8월 31일
(초록작성은 그림 포함3쪽 내외이며, 영문으로 작성)
 - 논문제출 마감: full paper 또는 ppt 발표자료는 9월 15일까지 제출
(한국측 발표자는 소정의 세미나비 지급 예정)
 - 문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양동운 박사
(042-868-3031, 011-420-6432 / ydy@kigam.re.kr)

회원 동정

☞ 축하드립니다 ☞

- 윤건신 회원
건설기술인의 날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2004년 3월 25일)
- 이태섭 회원
제37회 과학의날 대한민국과학기술 훈장
(2등급-혁신장) 수상 (2004년 4월 21일)
- 지광훈 회원
제37회 과학의날 대한민국과학기술 훈장
(5등급-진보장) 수상 (2004년 4월 21일)
- 한상준 회원
제37회 과학의날 대한민국과학기술 훈장
(4등급-도약장) 수상 (2004년 4월 21일)
- 한 욱 회원
제37회 과학의날 대한민국과학기술 훈장
(4등급-도약장) 수상 (2004년 4월 21일)
- 이찬희 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2004년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2004년 4월 28일)
- 민경덕 회원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으로 취임
(2004년 5월 3일)
- 강필종 회원
장남 강주형군 성혼 (2004년 5월 29일)
- 한 욱 회원
장녀 유진양 성혼 (2004년 6월 5일)
- 박맹언 회원
부경대학교 제9대 환경해양대학장으로 선출
(2004년 6월 18일)

회원님의 정보가 변경되었습니까?

office@gskorea.or.kr / 02-3453-1550 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인 회원

2004년도 대한민국의학술원 정기총회에서 회원
으로 선출 (2004년 7월 16일)

■ 참가 조의를 표합니다

■ 최선규 회원 부친상

(2004년 5월 26일)

■ 장호완 회원 부친상

(2004년 6월 1일)

2004년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